

[특별기획] » 4·5면
제1차 총장 후보자 토론

[기획] » 6면
도서관 앱 개편

[특별기획] » 8·9면
총장 후보자 공약 정리

[사회문화] » 10면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영내 범죄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

일시 : 제1차 2025.10.27.(월). 18:00 / 제3차 2025.11.10.(월). 18:00

총장 후보자들, '변화'와 '연속성' 사이에서 방향을 제시하다



우리학교를 이끌 제18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9명의 총장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1차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후보자들은 각자의 공약과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총장 후보자의 대학 운영 철학과 리더십 방향'을 주제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임자언 기자 11jaeeon@hufs.ac.kr

▶ 4면에서 계속

제11회 킹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세계 번역상 시상식 공동 개최

우리학교는 지난 9월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Four Seasons Hotel)에서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킹 압둘아지즈(King Abdullah) 공공도서관과 공동으로 '제11회 킹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King Abdullah bin Abdulaziz) 세계 번역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킹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세계 번역상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세계적 권위의 상으로 아랍어와 타언어 간 번역을 통해 지식 교류와 문화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 상은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시상식은 지금까지 스도일스무로코스브라질스스위스스페인스아침트스중국스프랑스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상식에 유수프 빈 압둘라 알 벤안(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및 파이살 빈 압둘라흐만 빈 무암마르(Faisal bin Abdulrahman bin Muammar) 킹 압둘아지즈 공공도서관 총감독관 등 사우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시상했다. 또한 국내 인사를 대상으로 공로상 시상도 이

어졌으며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 역시 수상자에 포함됐다.

박정운 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번역상 시상식을 킹 압둘아지즈 공공도서관과 공동 개최한 것은 우리학교가 추구해 온 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상징적인 계기다"며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류 및 문화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열린 학술 포럼(Forum)은 '번역과 인공지능: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는 윤은경 우리학교 아랍어과 교수와 사회를 맡아 번역 분야의 인공지능과 신기술을 다뤘다. 2부는 마이 빙트 무함마드 알라쉬드(May Mohammed Alrashed) 번역상 학술위원회 위원이 인공지능 응용에서의 아랍어 번역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 포럼은 애경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사우디 경제의 석유 의존을 줄이고 경제 구조를 다양화하며 스교육△관광△보건의료△인프라 등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가 진화 계획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튀르키예 바탄 컴퓨터 및 삼성전자 글로벌 리더 초청 특별 강연 개최

우리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는 지난달 16일 서울캠퍼스 도서관 5층 훌리아 큐슈네트홀에서 "튀르키예(Turkiye)와 한국의 가교 역할: 글로벌 리테일 커리어(Global Retail Career)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삼성전자△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았다. 해당 행사엔 150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종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학장의 환영사와 무라트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진 강연은 조철호 삼성전자 튀르키예 법인장(이하 조법인장)과 하산 바탄(Hasan Vatan) 바탄 컴퓨터(Computer) 회장(이하 바탄 회장)이 진행했다. 조법인장은 삼성전자 튀르키예 법인의 리테일 네트워크(Network) △구축 과정△브랜드 스토어(Brand Store) 확장△성장 전략△현지 협력 모델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겪은 경험과 통찰을 전했다. 이어 강연을

진행한 바탄 회장은 40여 년간의 기업가 역정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IT 유통 산업의 개척 과정과 삼성전자와의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과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생들은 △글로벌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한 자세△튀르키예 시장의 트렌드(Trend) 변화△현지 진출 전략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학과장은 "이번 강연은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며 "분야 전문가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튀르키예와의 학술 및 산업 교류를 확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5.09.17(수) ~ 10.01(수)	2025.11.19(수) ~ 12.03(수)
고시장 발표	2025.10.5(수) 15:00	2025.12.10(수) 15:00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예정	2025.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등록여지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01.02(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학과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안전·보안 분야(예:군, 경찰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홈페이지 – 입학원서 – 대학원 입학 안내 – 대학원 원서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밀물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는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

* 서울캠퍼스 면접은 현장 및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1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료함
면접대상자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2025.12.13(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5.11.3(월) ~ 11.7(금)	2025.12.29(월) ~ 2026.1.2(금)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상계좌 납부 가능

* 위 전형개최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우편·밀물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원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6. 전형장소 :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인공 망막’으로 난치성 실명 정복 나선다

△김정주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 연구팀△원재연 은평성모병원 안과 교수(이하 원 교수) 연구팀△조동우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기계공학과 특임교수(조 특임교수) 연구팀이 3D 바이오프린팅(3D Bioprinting) 기술로 ‘망막-온-어-칩(Retina-On-A-Chip)’ 제작과 이를 기반으로 망막정맥폐쇄 질환을 체외에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소재 및 나노공학 분야 최상위 국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컴포짓 앤드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즈(Advanced Composites and Hybrid Materials)’에 게재됐다.

‘망막정맥폐쇄’는 고혈압과 당뇨 등 질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망막 혈관이 막혀 시력이 손상되는 주요 실명성 질환이다. 아파트 수도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듯 망막의 정맥이 좁아지면 혈액이 흐르지 못해 망막이 부어오르며 염증과 신생혈관이 생겨 결국 시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기존 치료법은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재발률도 높았다. 또한 기존 망막정맥폐쇄 연구는 주로 동물실험과 2D 세포 배양에 의존했다.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과 사람의 생리적 차이가 너무 크다 한계가 있었다. 2D 세포 배양 또한 평면 배양만으로 복잡한 망막의 3차원 구조나 혈관 협착 현상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한계가 존재했다.

연구팀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위의 한계를 극복했다. 실제 망막 조직에서 세포만 제거하고 남은 세포외기질로 ‘하이브리드 바이오플



▲김정주 교수



▲조동우 교수



▲원재연 교수

크(Hybrid Bioink)’를 제작해 망막 고유 생화학적 신호를 그대로 반영한 미세환경을 구현했다. 또한 다중 노즐(Nozzle)과 삼중 동축 프린팅(Printing) 기술을 결합해 △망막의 혈관△세포층△혈액망막장벽을 동시에 구현하고 일부 혈관을 인위적으로 좁혀 질환의 병리적 진행을 재현했다. 그 결과 혈관 협착에서 △망막 기능 저하△염증혈관 누출△허혈*에 이르는 질환의 전 과정을 실험실 칩(Chip) 위에서 그대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제 환자와 유사한 △내피세포 손상△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 분비△장벽 봉괴 등의 현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

기존 항염증제나 항혈관신생제를 투여했을 때도 실제 환자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아스피린(Aspirin)은 손상 억제 효과를 보였고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베바시주맙(Bevacizumab)은 투여 시 염증과 신생혈관이 줄어 실제 약물이 칩 위에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신약 평가와 환자 맞춤형 치료 플랫폼(Platform)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김 교수는 “망막 특이적 세포외기질(ECM)을 활용해 복잡한 병리 환경을 칩 위에서 재현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당뇨망막병증이나 홍반변성과 같은 다른 실명성 질환 모델로도 확장해 정밀 의료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조 특임교수는 “실험실에서 실제 환자와 유사한 망막정맥폐쇄 병변을 재현할 수 있게 돼 신약 개발의 전임상 단계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망막정맥폐쇄 환자의 병리 과정을 직접 추적하거나 약물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연구가 그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연구 도구를 제시했다”며 “앞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허혈: 신체의 조직이나 장기에 혈액 공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윤고은 기자 10goeun@hufs.ac.kr

우리학교 송도캠퍼스 2단계 준공식 개최… 2027년 개교 향한 도약 시동

우리학교는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에서 2단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김종철 우리학교 동원 육영회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과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 을 비롯해 △건설 관계자△교직원△인천 연수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사업개요 및 경과보고△테이프 커팅식△인사말△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준공에 기여한 △(주)유안테크△참빛파워텍(주)△(주)티시스△(주)포스코에이엔씨건축사사무소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준공식 후 참석자들은 완공된 건물의 주요시설을 돌아봤다.

우리학교는 송도 첨단산업 클러스터(Cluster) 구역 내 총 43,595㎡(약 13,188평)의 부지를 마련해 송도캠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에 6,241㎡(약 1,888평) 규모 교사 2개 동을 완공했으며 이번에 준공된 복합건물은 지상 5층 규모로 △강의실△공동학습공간△스마트 강의실△실습실△행정지원시설 등 첨단 융복합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학교는 송도캠을 거점으로 △국제교류△산학협력△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도캠은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글로벌바이오 & 비즈니스융합학부와 외국인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Bio-Cluster)의 산업 수요와 대학의 국제 교육 역량을 결합한 특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한단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법인은 모든 면에서 잘 준비해 2027년 차질 없이 송도캠을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변의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환경을 활용해 산업 연계 R&D 협업 등 무한한 활용 기회를 살려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운 총장은 “송도캠은 우리학교가 ‘100년 외대’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과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연구 및 교육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외대 송도캠 제2준공식을 축하드린다”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가 △경제청△대학△중앙정부 등과 잘 협력해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에서 한국외대 송도캠의 발전을 위해 힘껏 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송도캠이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때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총학은 송도캠의 개발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재정적 자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미 양 캠퍼스 학생들의 등록금이 송도캠 관련 지출에 투입된 바 있으며 추가적인 부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학교가 부담한 차입금의 원리금은 법인 회계에서 전액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법인의 재정 책임이 행해지기 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커리큘럼과 교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글로벌△서울△송도 각 캠퍼스가 명확히 구분된 방향성을 가진 상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고은 기자 10goeun@hufs.ac.kr

우리학교, RMHC Korea와 인재 양성과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학교는 지난 9월 29일 재단법인 한국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Ronald McDonald House, 이하 RMHC Korea)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MHC Korea는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중증 질환 아동과 가족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 인근 숙소인 ‘하우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양산시에서 국내 최초로 개소한 양산하우스엔 장기 치료 환아 가족이 무상으로 머물며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재단은 병원학교* 후원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중심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학교는 △교육지원 프로그램△기업 연계 교육과정 개발△대학생 사회봉사 및 서포터즈 활동△외국어 및 글로벌 특화 인력 채용 협력 운영 등 RMHC Korea와의 사회 공헌 및 교육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강점인 △국제 지역학△국제통상학△통번역학△특수 외국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역량을 활용하는 취지다.

협약식 이후 열린 RMHC 서포터즈 하트브릿지(Heart Bridge) 발대식에선 우리학교 학생 10명이 서포터즈로 발탁됐다. 하트브릿지 1기는 다음 해 2월까지 △인터뷰 기획△카드뉴스 제작△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RMHC Korea의 주요 사업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실제로 해당

서포터즈는 지난달 29일 사회봉사데이 부스에서 RMHC Korea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팔로우 이벤트 등을 통해 재단의 홍보 기반을 마련했다.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은 “RMHC Korea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나눔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교육 협력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 RMHC Korea 회장은 우리학교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공헌의 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환아와 가족들에게 더 큰 안정과 희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병원학교: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

윤고은 기자 11juwon@hufs.ac.kr

우리학교, △기억△생태△평화를 잇는 ‘DMZ 생태아카이빙 세미나’ 개최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우리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중민재단△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DMZ 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AI 시대 DMZ 아카이빙과 안중근 동양평화론·김대중 지구민주주의’ 세미나를 지난달 25일 파주 DMZ생태연구소 및 민통선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을 활용해 △생태△인문학△평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기록 방식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DMZ 생태아카이빙’의 학제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동경비구역 및 개성공단 입구 탐방△아카이빙(Archiving) 견학△DMZ 현장 탐사 등 현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세미나는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장의 사회로 시작해 최은진 정보·기록학연구소 소장(이하 최 소장)의 개회사와 한상진 중민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발표에 먼저 김재현 DMZ생태연구소 박사(이하 김 박사)가 ‘평화와 상생을 위한 AI 시대 DMZ 생태 아카이빙’을 주제로 비무장지대(이하 DMZ)의 생태적 가치와 그 보존을 위한 디지털 기록의 필요성을 다뤘다. 김 박사는 AI 기술이 현장의 생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변화하는 생태환경을 시계열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DMZ를 ‘살아있는 기록장’으로 구축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 노명환 우리학교 명예교수는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 및 김대중의 지구민주주의’를 축으로 삼아 AI 시대의 DMZ 아카이빙이 단순한 기술적 축적을 넘어 동양평화 사상의 계승과 인류 공동체적 가치의 복원이라는 윤리·철학적 함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록학이 정치적 경계와 이념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공공기억을 확장하는 요소로 실천돼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준원 (주)위즈메타 대표(이하 박 대표)는 ‘DMZ 영상 데이터 기록의 큐레이션(Curation)과 세계적 활용’을 주제로 AI 기반 메타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영상기록 관리와 국제 공유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또 박 대표는 전 세계 연구자와 시민이 DMZ의 △문화△생태△역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아카이브 생태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며 데이터 큐레이션의 사회적 가치와 확장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DMZ를 경계의 공간이 아닌 기억과 생명의 기록장으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AI 기술을 활용한 생태기록과 평화기억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최 소장은 “AI 시대의 기록학이 △생태△인문학△평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기억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윤고은 기자 10goeun@hufs.ac.kr



윤고은 기자 10goeun@hufs.ac.kr

사라지지 않는 열람실 속 악취 무엇이 문제였나?

최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에서 원인 불명의 악취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추측이

오갔지만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서관 악취 문제 현황 및 원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도서관 악취 문제 현황 및 원인

지난 2023년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1열 뭔가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악취에 대한 불만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후 에타에선 지난해 1월부터 악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 발생 상황 초기에 악취 문제로 지적된 장소는 도서관 1층이었으나 현재 악취가 나는 장소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장소는 도서관 5층의 제1열람실이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캠 도서관(5층)'의 악취를 얼마나 자주 인식합니까?'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97.1% 하강이 인식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55.9%)의 학생들은 매번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설캠 도서관(5층)'의 악취를 얼마나 불쾌하게 느낍니까?'에 대해 97.1%의 응답자가 불쾌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73.5%는 매우 불쾌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학생이 해당 문제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우리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임에도 매번 도서관에서 악취가 나 방문 자체가 꺼려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악취 문제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에타에선 "동대문구의 하수도가 도서관 아래를 지나 악취가 발생한다"란 추측이 있었으며 설문조사에선 환기 문제와 쓰레기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사람들의 △음료 쓰레기 관리 상태△첨결 문제△환기 문제 등이 냄새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승용 우리학교 설캠 도

서관장(이하 이 관장)은 "사회과학관에서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길에서도 유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단 점에서 현재로선 오수관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형택 학술정보팀장(이하 명팀장)은 "정문 쪽에 동대문구 하수관로가 도서관 뒤편에 정화조가 위치해 있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하수관로의 기압이 낮아져 냄새가 쉽게 올라오는 환경이 조성되기에 특히 겨울철에 문제가 심화된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건물 자체가 완전히 밀폐된 구조가 아니기에 면과 면 사이의 미세한 틈을 통해 냄새가 도서관 내부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은 추측이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학교 측과 함께 계속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교 측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엔 도서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자 동대문구청과 협의해 도서관 앞을 지나는 하수관로의 맨홀 뚜껑에 냄새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 또한 도서관 외벽을 감싸고 있던 철제 패널(Panel) 일부를 망 형태로 교체해 틈을 통한 악취 유입을 최소화했다. 명팀장은 "원인만 정확히 파악되면 해결은 어렵지 않다"며 "지난해엔 안내데스크 쪽 악취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했지만 이

번 해엔 학생들로부터 5층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새로운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는 주로 겨울철에 심해지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지난해 겨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겨울에 지속적인 원인 조사를 진행해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명팀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리학교는 도서관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지원과 함께 학술정보팀은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다른 부수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 역시 음료 및 기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악취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청결한 도서관 시설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이러한 개인의 실천이 모여 청결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주연 기자 11juyeon@hufs.ac.kr

후속보도

달라진 군 E-러닝,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해선

지난 1094호에선 우리학교의 군 E-러닝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 후 지난 8월 11일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군 E-러닝의 학점 인정 제도의 개편

안을 발표하며 일정 부분 변화를 이룬 상황이다. 이에 관해 △개편된 군 E-러닝의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개편된 군 E-러닝의 현황

우리학교 군 E-러닝의 가장 큰 문제는 타 대학에 비해 수강할 수 있는 강의 수가 현저히 적어 수강 신청 시 경쟁률이 높다는 점이었다. 해당 문제점이 보도된 이후 제도는 일부 개편됐다. 기존의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학 중 1회에 한해 최대 6학점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던 제한이 이번에 1학기부터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인 학생들도 여러 학기에 걸쳐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는 지난 8월 11일 '2025-2학기 군 복무 중 원격수업 학점인정 안내문'을 공지했으며 이는 종학생회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서도 공유했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온라인 강좌에 한해 운영된다. 다만 별도의 수강 변경이나 취소 기간은 운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군 복무를 위해 휴학을 한 A 씨는 "군 E-러닝을 수강 하려다 서버 문제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수강 인원도 적고 과목 수도 제한적이며 서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비록 지난해 기준 피해 사례이지만 이번 학기 안내된 군 E-러닝 학점 인정 사항을 보면 상황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군 E-러닝은 '온라인'으로 표시된 과목 한정으로 운영되며 나라사

랑포털에 안내된 정원 외 추가 증원 계획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부족과 적은 수강 가능 인원으로 경쟁률이 높인다. 높은 경쟁률은 서버 동시 접속자의 수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몰린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서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별도의 수강 변경이나 취소 기간이 운영되지 않아 군 휴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 기회를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군 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해 군 복무 중 수강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아울러 1학점당 8만 5천 원이란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비용적 측면에서 군 복무 중 수강생들을 위해 우리학교가 제공하는 혜택이 없단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군 복무 중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군 E-러닝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캠퍼스 종학생회(이하 설캠 종학)가 관련 제도 전반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설캠 종학은 "군 복무 중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군 복무 여건상 짧은 수강 신청 기간 △군 E-러닝 개설 과목과 전공 선택 폭의 한계△수강 정원 및 개별 신

청 반영 부족△온라인 강의임에도 대면 시험을 요구하는 운영 방식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설캠 종학은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오는 5일 예정된 교무처장 면담에서 군 E-러닝을 포함해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언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목 수 및 인원 증설 계획 여부에 대해선 "해당 문제는 지난해 설캠 종학의 '군 E-러닝 학습권 보장' 사업을 통해 대상자 인터뷰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주요 개선 과제이다"며 "해당 사업의 주무 부서인 교육정책국 소속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주변 학우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과목 수 및 정원 부족 문제를 반드시 증설해야 할 과제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에 따라 대학 본부와 주무 부서에 증설 및 확대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개선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수강 신청 기간 관련 질문에선 "군 복무자의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 수강 신청 기간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수강 신청 일정은 학부와 대학원 내부 일정 및 협의에 영향을 받으며 학사 운영 전반과 연동돼 있기에 실제 기간 조정 가능성은 대학 본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에 따라 향후 논의를 통해 신청 기간 연장 및 추가 신청 절차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비용적 측면에서 국가 복지를 제외한 우리학교 자체의 지원 및 부수적인 혜택 여부에 관

한 질문에선 "현재 군 E-러닝 수강생 중 현역 복무자는 국방부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수업료의 80%를 지원받고 있으나 본교 차원에서의 별도 금전적 지원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학교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군 복무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 복무 학생을 위한 행정적 및 학사적 지원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며 개선 의지를 표했다.

타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세대학교의 경우 모든 성적 평가가 P/NP(Pass/Non-pass)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진행 방식도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과제 대체로 학교 측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타 학교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군 휴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적합한 군 E-러닝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군 E-러닝은 국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므로 학교가 단독으로 개선하기엔 각종 제약이 많으며 학교 측의 재정 상황상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다.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학교 측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연 기자 11juyeon@hufs.ac.kr

총장 후보자들, '변화'와 '연속성' 사이에서 방향을 제시하다

우리학교를 이끌 제13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9명의 총장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1차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후보자들은 각자의 공약과 이에 대한 의견을 공

유했으며 '총장 후보자의 대학 운영 철학과 리더십 방향'을 주제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토론회에서 논의된 후보자별 주요 발언을 △오프닝 밸런스 게임△후보자 대상 공통 질문△후보자 마무리 연설 및 향후 선거 진행 방향 순으로 살펴보자.

◆오프닝 밸런스 게임 요약

질문 1)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것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과 디지털 기술 중심의 혁신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융합형 종합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인문학적 가치와 교양 회복을 중심으로 외국어 중심 대학의 전통을 강화해야 한다" 중 하나를 고르시오

다음은 전자를 선택한 후보자들의 발언이다. 기호 1번 장지호 후보자는 "우리학교가 항상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해 오며 지난 70년간 어학 및 지역학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며 "계속해서 우리의 DNA는 지키되 시대가 요구하는 AI 및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우리의 것으로 흡수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윤성우 후보자는 "우리학교의 외국학 혹은 지역학의 비교 우위는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학교가 수용하고 변화해야 될 부분을 언급하며 AI 기술의 필요성을 논했다.

기호 3번 최승필 후보자는 "이미 우리학교는 AI를 배우는 과정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적인 우리의 어문학 및 인문학의 경우에 AI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4번 이상환 후보자는 "전자를 선택한 것은 인문 사회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는 의견을 밝히고 리니지(Lineage) 게임을 개발한 NC 소프트가 개발 당시 50명의 인문 사회 졸업생을 채용해 전문가를 만들어 유럽에서 유럽 설화를 조사하고 탐방해 바탕이 됐던 예시를 언급했다.

기호 6번 강기훈 후보자는 "결코 인문학의 가치를 축소하거나 교양을 줄이는 것이 아닌 양자 간의 특징을 더욱 절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한 리버럴 아트 칼리지(Liberal Art College)와 같은 경우 이미 AI 융합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반대로 종합대학에서도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근거를 더했다.

기호 9번 박흥수 후보자는 "전통의 계승이란 측면에서 우리학교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친성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학교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학문 영역에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후자를 선택한 후보자들의 발언이다. 기호 5번 임대근 후보자는 "인문학적 가치는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이며 인간과 문화가 존속하는 한 인문학적 가치는 버릴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우리학교의 외국어란 가치도 버릴 수 없다"고 말을 더했다. 다만 "인문학적 가치와 외국어 전통에 새로운 AI와 디지털을 함께 더할 때 우리의 외대가 더욱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며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호 7번 박흥선 후보자는 우리학교의 외국어 대학스러움을 강조하며 외국 문화 관계에 있어 최고를 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 양 캠퍼스 모두 똑같이 성장하는 멀티 캠퍼스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을 전했다.

기호 8번 유달승 후보자는 우리학교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전과 확산이 오히려 우리학교가 융합형 종합대학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와 토대의 마련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어 중심 대학의 전통을 강화한다는 것이 AI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 중심의 혁신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질문 2) 긴급한 업무 결재가 필요할 때 '핵심만 요약해 신속히 구두로 보고하는 방식'·"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자료를 갖춰 공식 절차대로 보고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시오

후보자들은 모두 전자를 선택했다. 기호 1번 장지호 후보자는 "대학 행정은 이론으로 되지 않으며 실제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과도 같이 간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윤성우 후보자는 "급한 업무는 당연히 구두 보고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긴급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후 나머지 의사결정들은 정확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결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최승필 후보자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 담당자였던 경험을 언급하며 위급한 상황에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 해야 하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호 4번 이상환 후보자는 "정확성 문제는 사후 보완이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친 것은 더 이상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며 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일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진행한 후 나머지를 사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호 5번 임대근 후보자는 "모든 시안은 발생했을 때 최초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외에도 중간 보고 및 사후 보고에 이르는 4단계에 걸친 보고 체계가 완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며 협치할 수 있는 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호 6번 강기훈 후보자는 자신의 글캠 백년관 공사 경험을 얘기하며 "신속하게 구두로 보고하고 팔로잉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에 반드시 공식적인 서류와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을 더했다.

기호 7번 박흥선 후보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신속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방식을 언급하며 의견을 전했다.

기호 8번 유달승 후보자는 "양 캠퍼스 부총장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자율적인 분권형 행정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말을 전했다.

기호 9번 박흥수 후보자는 "응급 상황시 휴대전화로 요약해 신속히 구두로 보고하고 긴급한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질문 3) 대학교의 경쟁력에 있어서 "교수의 연구역량에 있는지"·"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이 우선인지" 중 하나를 고르시오

다음은 전자를 선택한 후보자들의 발언이다. 기호 1번 장지호 후보자는 "연구를 잘하고 또 새로운 연구를 도입하는 교수님들의 역량이 곧바로 좋은 교육으로 연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호 2번 윤성우 후보자는 "교수의 연구 역량이 먼저 확보돼야 나머지 교육 혁신 및 산학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호 4번 이상환 후보자는 "연구와 학생 교육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하지 않는 교수님은 좋은 강의를 하실 수 없으며 특히 시의성을 요구하는 학문 분야는 지속적인 연구가 없다면 좋은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의 역량을 중시했다"고 전했다.

기호 5번 임대근 후보자는 "새로운 지식은 연구를 통해 서만 생산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교육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기호 6번 강기훈 후보자는 연구를 대학의 뿌리로 교육을 대학의 열매에 비유하며 연구의 결과가 교육으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후자를 선택한 후보자들의 발언이다. 기호 3번 최승필 후보자는 "교수들의 열정적 연구가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치환이 되고 또 교육의 과정에서 연구의 쟁점들 연구의 대상들이 도출되게 되는 것"을 언급하며 "양치를

상호 불가분적인 관계로 보고 그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시기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호 7번 박흥선 후보자는 "자식과 배우자 중 누구를 살릴거니"란 대화 중 자식을 살릴 거라 말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자식에 해당하는 학생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기호 8번 유달승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교육 혁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교수의 역량과 더불어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호 9번 박흥수 후보자는 "교수의 연구 역량과 학생 교육의 혁신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며 "학생은 우리 학교의 성과이자 우리학교 평판을 얻는 주체이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 혁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질문 4) 총장으로서 대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철학에 대해 "성공 확률 50%의 혁신적인 신사업에 과감히 투자한다"·"성공 확률 90%의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더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 내실 있는 경영이다" 중 하나를 고르시오

다음은 전자를 선택한 후보자들의 발언이다. 기호 2번 윤성우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초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내세우며 혁신적 신사업에 자신을 보였다.

기호 5번 임대근 후보자는 지난 세월 내·외부에서 우리 학교가 지나치게 정체돼 있단 평가를 받고 있단 것을 언급하며 더 이상의 안정 추구는 안된다고 밝혔다.

기호 8번 유달승 후보자는 "다양성 및 목적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글로벌 헬스케어센터(Global Health Care Center) 및 보건 미래 의료 분야 확장 공약을 강조했다.

기호 9번 박흥수 후보자는 본인의 공약 중 베를리 음악대학을 토대로 아시아 하브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을 언급하며 과감하고 새로운 투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후자를 선택한 후보자들의 발언이다. 기호 1번 장지호 후보자는 "대학의 사업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운영은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몇 대학들의 재정적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은 대학답게 교육에 집중하는 안정적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전했다.

기호 3번 최승필 후보자는 '아이유노(Iyuno)'란 통번역 모델을 언급하며 기존 통번역과 같이 우리 학교가 현재 잘 운영 중인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단 입장을 보였다.

기호 4번 이상환 후보자는 현재 우리 학교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나 R&D 사업 조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주요 대학의 위상에 걸맞게 '현재 가능한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기호 6번 강기훈 후보자는 사업 성공 확률 50%의 수치를 무모한 선택이라고 봤다. 다만 사업 성공 확률을 80%로 높인 단포부를 밝혔다.

기호 7번 박흥선 후보자는 우리 학교가 지원이 있을 때 이를 어디에 투자하나는 관점으로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기존 사업은 유지하지만 새로운 투자는 형식을 갖춰 캠퍼스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후보자 대상 공통질문 요약

질문 1) "후보자님께서는 대학 교육의 본질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장지호 후보자는 "대학 교육의 본질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구성원 간에 합의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정체성은 언어 교육과 지역학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 대학만이 갖는 독보적 자신이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디지털△ESG 등 시대적 수요에 맞는 통합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에 어문 학과의 지속적인 융합 전략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언어와 지역 그리고 미래 산업이 함께 특성화를 이루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학교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며 의견을 전했다.

기호 2번 윤성우 후보자는 대학 교육의 본질을 학생의 성장과 변화로 표현하며 자신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 발표를 이어갔다. 우선 스트랙 1△트랙 2△트랙 3을 나누어 외국어 교육과 외국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담았다고 말을 전했다. 트랙 2의 경우 지역의 △경영△경제△통상을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를 불여 외국어에 기반한 지역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으로 지역학 인재를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르치는 영역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외국어 혹은 디국학의 능력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학교의 미래 인재가 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최승필 후보자는 "대학 교육의 본질은 경쟁력 있는 사회적 인재 양성이다"고 말을 전했다.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 공동체와 융합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것도 대학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학교는 어문과 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외교 통상과 더불어 지금까지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제△사회·문화△정치 등과 결합을 통해 국가 전략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학교의 과제다"고 밝혔다. 이 과제의 경우 AI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서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호 4번 이상환 후보자는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깨닫게 만드는 이른바 '좌절하는 교육'이었다면 그와 반대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를 찾아주는 교육이 대학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 언급했다. 또 "학생들에게 외국어와 IT 지식을 도구로 △경제△법△정치와 관련된 지식을 콘텐츠로 삼아 소통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입시 결과만 높여 교육과 상관없이 결과를 보려는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임대근 후보자는 "우리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질은 세계 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미래△전통△현대의 관점과 대상과 방법을 아우르는 고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학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율이며 자율은 창의를 낳고 이는 성장을 낳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 교실 이론과 실습을 함께 연계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추구하겠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 자율의 교육 체계를 만드는 자율 전공제와 자율 학점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호 6번 강기훈 후보자는 “대학의 본질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나름의 지식을 함양시키는 것은 물론 생각을 성장시키고 세계와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학교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인문학적 소양과 지역학적 인지식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AI 기술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추가해 관련 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언어스아공계 학문△지역학이 모듈화된 학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산학 협력 시 PBL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호 7번 박흥선 후보자는 “교육의 본질이 인재상에 있으며 우리학교의 인재상은 외국어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수업의 기회를 열어야 하며 학생 복지에 관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스마트 도서관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인들의 책무를 강조했다.

기호 8번 유달승 후보자는 학생 개인의 상상력을 만들 어주고 그것이 시대와 사회에 공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경쟁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싶단 바람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성적 평가 관련된 부분을 새롭게 조정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온라인 학습△창업 교육△현장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확대해 학생 개개인의 상상력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그에 걸맞은 지원도 학교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호 9번 박흥수 후보자는 “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 개인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공약인 버클리 음악대학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우리학교와 버클리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해 △공학△사회과학△인문학△AI가 함께하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융복합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전했다.

질문 2) “현재 우리 대학은 △국내·국제 대학 평가 지표 하락△재정 악화△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장지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재교육 시장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연령대별 및 직무별로 체계적으로 나누어 커리어 포워드(Foward)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학생은 외국 유학생 전용 대학으로 영어 및 중국어로 운영되는 경영학이나 외국 유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를 만들어 외국인 전용 대학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윤성우 후보자는 “우리학교의 수용 능력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우리 학교 향편에 맞게끔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악화 부분에선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봤다. 제도 측면에선 “미래 혁신 체를 만들어서 평가를 전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연구자분들을 모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호 3번 최승필 후보자는 재정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재정이 충당되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학과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재정 충당을 위해 파이낸셜 허브란 서울대 발전재단의 모델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기부금 유치 방안과 기술 지주회사 설립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대학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해 교수의 해외 연구 및 랩 구성과 같은 지원 확충을 언급했다.

기호 4번 이상환 후보자는 우리학교의 가장 커다란 문

제로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의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지주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으나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기 전까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R&D를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를 위한 로드맵을 이는 분들이 우리 대학에도 많이 계시기에 성공 확률이 높은 재원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5번 임대근 후보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학교는 평생 교육을 위해 고졸 재직자 전형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 송도 캠퍼스에 새로운 고졸 재직자 전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플랫폼△한국어 교육 플랫폼△스튜디오 플랫폼 등 최소한 6개의 플랫폼 사업을 통해 연간 220억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기호 6번 강기훈 후보자는 학령 인구 감소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정원외 학생을 추가로 모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와 관련해선 “케이메드 헬스 헬스케어

그룹을 주장했다. 또 “자이나 MBA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학의 과정을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선 본인의 핵심 공약인 버클리 음악대학을 언급하며 말을 더했다. “버클리 음악대학은 아시아 허브를 우리학교에 만들고 싶어 하며 버클리 대 한마인으로 △공동 학위 과정 운영△실업 음악 캠프 운영△지역 재산권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질문 3) “후보자님의 리더십 원칙은 무엇입니까? 특히 대학의 중대갈등이나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 원칙은 무엇입니까? 총장으로서 △교수△법인△직원△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소통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장지호 후보자는 “신뢰는 습관이며 소통은 체질이다”고 답하며 “소통을 통해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반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윤성우 후보자는 학교를 ‘시론구동의 자동차’로 표현하며 △교수△법인△직원△학생이 각자의 바퀴를 잘 돌려야 학교 발전이 가능하며 법인과의 적극적인 대화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 후보자 마무리 연설 및 향후 선거 진행 방향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연설 시간이 이어졌다.

기호 1번 장지호 후보자는 자신이 내세운 80개의 공약을 4년 동안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함께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있다면 정치적 구분 없이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호 2번 윤성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우리학교의 주권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지난 자신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현재의 총장 선거를 통해 학교의 더 큰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호 3번 최승필 후보자는 “자신의 오랜 조직생활을 통해 우리난 경험을 토대로 소통을 중시하는 총장이 되겠다”며 “오늘의 토론이 △교수△교직원△학생들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호 4번 이상환 후보자는 자신이 제시한 10대 공약을 언급한 후 “다른 대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며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제시하는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기호 5번 임대근 후보자는 “우리학교의 이름처럼 한국과 외국어를 연결하는 브릿지(Bridge)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학△사회과학△테크놀로지(Technology)를 아우르는 K-컬처와 콘텐츠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호 6번 강기훈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과 함께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으로 보람차게 근무하는 직원△AI 시스템 하에서 첨단 교육을 받고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기호 7번 박흥선 후보자는 직선제에 기반한 우리학교의 총장 선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여러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가치 있는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호 8번 유달승 후보자는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고 멈춘 것은 다시 움직이겠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총장이 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재정 자립 전략으로 ‘외대를 외대답게’ 만든다는 약속과 함께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호 9번 박흥수 후보자는 버클리 음악대학과 우리학교가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버클리 음악대학 유치가 우리 대학의 융복합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캠퍼스를 문화 예술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김형래 총장후보주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께 협조를 요청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K-med Hufs Holdings)라는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해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재정 수입 확보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 공동연구 강화△해외 석학 초청△교수 논문 피인용도 상승 등을 통해 연구에 대한 지표를 향상해 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호 7번 박흥선 후보자는 “우리학교의 많은 훌륭한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들의 연구가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부 문화를 언급하며 “현재의 기부 문화를 바꾸고 점차 기부를 확산시키는 문화로 이행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기호 8번 유달승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글로벌 헬스케어 센터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토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대학의 강점을 살려 한국어문화교육원을 글로벌 K-교육원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전공자들이 함께 융복합 모델을 구축해 외대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연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사회나 국제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확대하면서 우리학교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기호 9번 박흥수 후보자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글로벌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재정

기호 3번 최승필 후보자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됨을 강조하며 소통이 가능한 제도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기호 4번 이상환 후보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중시하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덕목으로 밝혔다.

기호 5번 임대근 후보자는 “소통을 제도화하는 방식을 통해 소통의 리더십 및 민주의 리더십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기호 6번 강기훈 후보자는 “민주적 의사소통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호 7번 박흥선 후보자는 “리더십의 원칙은 결정이다”고 언급하며 열린 마음의 총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8번 유달승 후보자는 “앞으로도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지향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호 9번 박흥수 후보자는 특정 결정이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지△학교에 도움이 되는지△합법적인지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QR 코드를 통해 전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개편된 도서관 앱, 학생 편의의 증진을 위해선

지난 9월 12일 우리학교 도서관 앱(Application, 이하 앱)은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기능과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했다. 그러나 개편된 도서관 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기사를 통해 △도서관 앱의 현황△개편된 도서관 앱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도서관 앱의 현황

지난 9월 12일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우리학교 도서관 앱은 업데이트를 거쳐 기능과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에 바뀐 도서관 앱은 △열람실의 장애인석 표기△열람실 좌석표 목록창△열람실 좌석 확대축소 기능 등이 추가됐다. 또 기존 도서관 앱의 △메뉴 배치△열람실 좌석 예약 과정△UI(User Interface)* 등이 변경됐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선 이전보다 보기 편해졌단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부정적 반응들도 있따르며 도서관 앱의 변화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9월 17일 우리학교 의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새롭게 개편된 도서관 앱은 열람실 복귀 알람이 안 울리고 기존 앱에 비해 좌석 구별이 어렵다고 불편을 토로한 글이 수십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올라온 도서관 앱을 풍자한 글 역시 수백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받았다. 외대 학보에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서관 앱 만족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불만족 36.4%△매우 불만족 27.3%△만족 27.3%△보통 9.1%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 앱 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반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학형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학술정보팀 팀장(이하 명 팀장)은 "개편 이전에 제공했던 도서관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도서관 홈페이지의 개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시 제약사항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편도 병행해서 진행된 것이다"며 이 같은 상황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편된 도서관 앱의 긍정적인 점

개편된 도서관 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존재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존 도서관 앱에선 장애인 좌석이 표시돼 있지 않았던 반면 새롭게 개편된 도서관 앱에선 장애인 좌석을 표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좌석 배치도의



색상 표시나 화면과 같은 도서관 UI의 디자인을 재단장하며 한 눈에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개편된 도서관 앱에 대해 △열람실 좌석표 세분화△화면디자인△장애인 관련 기능 추가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도서관 좌석을 예약할 때 좀 더 가시성이 좋아진 것을 느낀다"며 개선된 도서관 앱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남겼다.

◆개편된 도서관 앱의 문제점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외출 후 복귀 알람 및 좌석 연장 알림이 제대로 오지 않는 단점이다.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에타에 따르면 복귀 알람 및 좌석 연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좌석을 다시 배정받거나 출입구에 있는 큐알코드(QR Code)를 다시 찍기 위해 이동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는데 좌석 연장 알림이 제대로 오지 않아 재등록을 하기 위해 큐알코드를 찍으러 여러 번 도서관 입구로 이동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좌석 예약 단계 추가로 인한 번거로움 역시 많은 지적을 받았다. 개편 전엔 도서관 앱 접속 후 좌석 이용 탭을 누르면 곧바로 좌석 현황이 보였던 반면 새롭게 개편된 앱에선 좌석 이용 탭을 누르면 좌석 현황 대

신 열람실 이용 안내가 떠 좌석 예약에 번거롭단 지적이 이어졌다. B 씨는 "열람실 좌석을 예약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더 번거로워 느껴진다"며 "열람실 예약은 학생들이 도서관 앱에서 자주 이용하는 기능인 만큼 개편에 대한 사전 공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 외에도 기기별 앱 작동 불능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했다.

이처럼 도서관 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개편 전 도서관 앱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점이 지적된다. 앞서 언급한 에타에선 개편 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단 내용의 글과 댓글이 수차례 달렸다. 이와 같은 지적은 설문조사에서도 이어졌는데 개편 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 도서관 앱 사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단 답변이 42.9%에 달했다. 도서관 앱의 사용자 대다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앱 개편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는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개편된 도서관 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개편 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외출 후 복귀 알람 및 좌석 연장 알림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활성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현재 기기별로 도서관 알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저하된 알림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버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좌석 예약 단계의 추가로 인한 불편은 개편 이전으로 되돌림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좌석 예약 시 불필요한 열람실 이용 안내 창 대신 곧바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표를 가장 먼저 둬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에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문제인 좌석 예약 과정에서 예약 초기화 및 앱 로그아웃 등의 시스템적인 문제 역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앱은 학생들이 전자 신분증이나 열람실 이용을 위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다. 도서관 앱 사용자들의 대다수가 학생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에타의 글과 설문조사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도서관 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능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만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개편된 앱을 적용하기 전 예비 시행 기간을 설정해 일정 기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개편을 시행한다면 더 나은 도서관 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명 팀장은 "현재 학내에서 표출되고 있는 도서관 앱 개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대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스크롤 형식의 좌석 확대 기능 변화는 장애인을 고려하여 추가된 기능으로써 이번 개편에서 불가피했던 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개편된 도서관 앱은 기대와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학생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도서관 앱 개편 이후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만큼 앱 관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UI(User Interface): 사용자가 컴퓨터나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둘는 화면, 버튼, 메뉴 등의 시각적·기능적 요소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9.12(금) ~ 09.26(금)	2025.11.14(금) ~ 11.28(금)
고사장 발표	10.15(수) 15:00	12.10(수) 15:00
면접전형	10.18(토) 10:00 예정	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30(목) 15:00	12.1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3(월) ~ 11.07(금)	12.22(월) ~ 12.26(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화학과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출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원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원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출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민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즐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국내 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기사점 부여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4)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5)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7)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8)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9)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0)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1)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2)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3)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4)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5)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6)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7)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8)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19)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0)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1)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2)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3)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4)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5)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6)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7)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8)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29)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0)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1)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2)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3)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4)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5)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6)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7)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38) 학교(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Moin, Hamburg!

고등학생 때부터 '언젠가 독일에서 정치학을 공부해 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해 왔다. 그렇게 난 우리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에 입학했고 이중 전공으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다. 처음 접한 독일어는 어렵고 복잡했지만 그 만큼 매력적인 언어였다. 그래서 방학에도 독일어 학원에 다니며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 결과 학과 수석으로 전액 장학금 까지 받았고 독일어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꿈에 그리던 1년 간의 독일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막상 독일에 와보니 내가 지금껏 교과서로 배웠던 독일어가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첫 2주간은 한국에서 생각했던 내 실력과 현지에서 느껴지는 내 실력 간의 차이를 받

할 수 있기에 서로 좋은 언어 교환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행사를 통해 친해진 친구가 자신의 집에 초대해 줘 그 친구의 집에서 같이 김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독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에 갔던 것이다. 옥토버페스트는 뮌헨(München)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로 전 세계에서 매년 600만 명이 찾는 독일

지난해까지만 해도 난 여유를 모르고 살았다. △과제△스마트폰△알바△뭐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러던 내가 독일에서 7개월을 살며 점차 여유를 누리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날씨가 좋으면 아무 공원에나 누워 낮잠을 자기도 하고 좋아하는 빵인 메트브로트(Mettbrötchen)을 먹으며 계획 없이 기차여행을 떠나보기도 했으며 고민이 있을 땐 알스터(Alster)라는 함부르크의 호수를 바라보며 두 시간이 넘도록 홀로 사색에 잠겨보기도 했다.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내 인생에서 1년이라는 휴식이 주어지니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교환학생 생활의 절반이 넘



아들이기 급했다. 어느 정도 독일 생활에 적응하고 나서야 새로운 표현과 단어들이 귀에 들렸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됐다.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함부르크(Hamburg)에 있는 함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Hamburg)다. 함부르크 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학과'가 있단 것이다. 덕분에 나처럼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독일 학생 간 교류 행사가 많다. 내가 독일에 와 가장 먼저 사귄 친구들도 한국학과 학생들이다. 대부분의 한국학과 학생이 한국어를 구사

해서 가장 큰 축제다. 난 함께 교환학생으로 온 우리학교 학생들과 이 축제에 참여했다. 함부르크는 독일의 북부 지역이라 뮌헨까진 기차로 6시간이 걸린다.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뮌헨까지 가서 즐긴 옥토버페스트는 잊지 못 할 추억으로 남았다. 술이 핵심인 축제다 보니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니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겼다. 한 손으로 들기도 버거운 1리터짜리 맥주잔을 들고 처음 보는 옆자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독일의 건배인 '프로스트(Prost)'를 외치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장은솔(통번역·독일어 23)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9. 30.(화) ~ 10. 14.(화)	원서작성: 2025. 11. 11.(화) ~ 11. 20.(화)
면접 전형일	2025. 11. 1.(토)	2025. 12. 6.(토)
입학설명회	2025. 11. 7.(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종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4제도 시행(선행지사에 대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입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SAA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5. 9. 18.(목) ~ 10. 02.(목)	2025. 11. 14.(금) ~ 11. 28.(금)
고사장 발표	2025. 10. 15.(수) 15:00	2025. 12. 10.(수) 15:00
면접전형	2025. 10. 18.(토) 10:00 예정	2025. 12. 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5. 10. 31.(금) 15:00	2025. 12. 26.(금) 15:00
등록예지금 납부	2025. 11. 03.(월) ~ 11. 07.(금)	2025. 12. 29.(월) ~ 2026. 01. 02.(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환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원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인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설정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체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수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과정) 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팀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이수트랙신설 (논문·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521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3대 총장 선거, 9명의 후보가 그리는 외대의 미래

지난달 27일 제1차 공개토론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우리학교 제13대 총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에 비해 학생과 교직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확대돼 △교수 76% △교직원 12%

학생 12%로 확대됐다.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하며 역대 최다 공개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된다. △주요 일정△후보별 공약△공약 총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제13대 총장 선거의 주요 일정

지난달 15일 역대 총장 선거 중 최다인 9명의 후보자 등록이 완료됐다. 후보자는 기호 순서에 따라 △장지호 행정학과 교수△윤성우 철학과 교수△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환 정치외교학과 교수△임대근 융합인재학부 교수△강기훈 통계학과 교수△박홍선 통계학과 교수△유 달승 폴리시아이·이란학과 교수△박홍수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이다. 지난달 17일 선거인명부가 공개됐으며 선거권을 가진 구성원은 △교수 431명△직원 251명△학생 15,327명으로 확인됐다. 공개토론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공개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 지난 3월 2차 토론회△오는 10일 3차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4차 토론회는 오는 26일 수요일에 진행될 1차 투표 이후 진행된다.

◆공약 총 분석

① 인프라 및 캠퍼스 개선

총장선거에 출마한 9명의 후보자 모두 캠퍼스 인프라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협소한 부지 문제와 글캠의 노후화된 건물 및 교통 불편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모든 후보자는 양캠퍼스의 노후 건물 리모델링과 친환경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약속했으며 특히 글캠의 스마트도서관 신설과 연구 및 학습 공간 확충을 강조했다. 장지호 후보자는 설캠의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학습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세곡동 부지에 글로벌 전략 언어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우 후보자는 글캠에 4차산업 미래캠퍼스와 신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설캠을 차 없는 그린캠퍼스로 조성하겠다고 구상을 세웠다. 최승필 후보자는 송도캠퍼스에 대학원을 신설해 국제 연구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설캠과 글캠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이상환 후보자는 양캠퍼스 공간 인프라 개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캠퍼스 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형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대근 후보자는 송도캠퍼스를 국제전략대학원과 K-컬처(K-culture)대학이 있는 자족형 캠퍼스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훈 후보자는 네이버(NAVER)와 협력한 AI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선 후보자는 글캠 AI 연구소 설립과 서울버스 확충으로 캠퍼스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달승 후보자는 세 캠퍼스의 특성화 발전과 함께 강남캠퍼스 신설을 제안했다. 박홍수 후보자는 △글로벌△서울△송도 캠퍼스를 각각 △바이오△어문△이공계 특화 캠퍼스로 조성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② 장학금 및 재정 안정화

9명의 후보자 모두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대학 혁신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 전략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대부분은 △발전기금 조성△산학협력 강화△외국인 유학생 확대△외부 연구비 유치 등을 주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지호 후보자는 법인 전입금 증액과 기부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학교 발전기금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우 후보자는 외국인 전용 단과대학 신설 및 AI 플랫폼의 학교 기업화를 통해 임기 내 예산 3,650억 원을 달성을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최승필 후보자는 국책과제 수주와 산학연 협력 확대를 통한 연구비 확보로 재정 지립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환 후보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및 R&D 과제 수주를 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근 후보자는 학교 기업 설립과 송도캠퍼스 자족형 운영을 통해 자체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2800명 이상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강기훈 후보자는 △외국인 유학생 확대△태양광 발전시설 임대△K-MED 의료 플랫폼 등으로 재정 규모를 3,000억 원 이상 달성을 공약했다. 박홍선 후보자는 △국제화 확대△기부금 채널 신설△등록금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달승 후보자는 발전기금 400억 원 조성과 국제사업 수주를 통한 재정 지립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수 후보자는 △바이오△유학생 유치△International Medical School 운영을 통해 558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확보를 약속했다.

③ 교육 및 연구 혁신

모든 후보가 AI 및 데이터 기반 교육과 융복합 학문 강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산학협력 중심의 연구 혁신△현장형 실무교육△AI 리터러시 교육이 주요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장지호 후보자는 교양과정 개편과 글로벌 여정 강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우 후보자는 총장 직속 AI 위원회를 신설해 대학 차원의 AI 교육 정책을 종합하고 QS·중앙일보 평가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육 품질 개선을 약속했다. 최승필 후보자는 AI 및 데이터 융합 교육 확대와 글로벌 현장형 학습을 통해 실용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을 내세웠다. 이상환 후보자는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융복합 학제 개편으로 우리학교의 어문과 지역학 강점을 신산업 분야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임대근 후보자는 △세계통역 및 번역족제 개최△HUFSCareerPath 번역인증제 도입을 통한 실용교육 강화△K-컬처와 콘텐츠 기반의 창의융합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강기훈 후보자는 전교생 AI 리터러시 필수화 및 네이버 공동연구센터 설립으로 첨단 융합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박홍선 후보자는 AI 연구소 설립과 글캠 중심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육 질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달승 후보자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평생 교육 플랫폼 구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수 후보자는 AI·데이터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진 AI 역량 강화로 미래형 교육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④ 행정 효율화 및 소통

후보들은 모두 대학 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디지털 행정 전환과 구성원 간 신뢰 회복이 공통된 방향으로 제시됐다. 장지호 후보자는 'HUFSCareerPath'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교직원△동문△학생 간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 및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우 후보자는 대외평가 전담부서와 정부재정지원 대응체계를 마련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최승필 후보자는 AI 기반 데이터 행정체계를 도입해 학사와 재무 업무를 자동화하고 구성원 참여형 거버넌스(Governance)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환 후보자는 공정한 인사제도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의 추진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임대근 후보자는 소통과 신뢰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치형 대학 운영을 제시했다. 강기훈 후보자는 AI 행정시스템과 업무 데이터화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선 후보자는 양캠퍼스 간 독립적 행정 운영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자율성과 참여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달승 후보자는 열린 총장실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한 소통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수 후보자는 ERP 통합시스템과 AI·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로 대학 행정의 효율화를 약속했다.

⑤ 학내 구성원 복지 확대

△교수△교직원△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복지 강화는 9명의 후보 모두가 공통으로 내세운 핵심 과제였다. △교직원 급여 인상△근무환경 개선△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장학금 확대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 장지호 후보자는 △등록금 부담 완화△장학금 확대△주거 및 의료 지원 체계 개선 등 학생 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작은 복지 프로그램'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성우 후보자는 △교원 성과 보상 확대△직원 복지제도 개선△학생 진로지원 프로그램 'HUFSCareerPath'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승필 후보자는 참여와 돌봄 중심의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상환 후보자는 △인식변경 제도△연구비 지원 확대△직원 급여 현실화 등으로 근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임대근 후보자는 재학생에게 해외 워크숍 프로그램 '런케이션(Lean-cation)'을 제공하고 교원에겐 연구 마중물 제도와 AI 조교 지원을 약속했다. 강기훈 후보자는 교수와 직원의 연구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 제도를 제시했다. 박홍수 후보자는 교직원 임금 매년 5% 인상과 6년 근속 직원 안식 월 제도 도입 등 현실적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유달승 후보자는 △직원 급여 인상△학생 장학금 확대△호봉 형평성 회복을 공약했다. 박홍수 후보자는 △교원 연구비 지원△급여 인상△제3자 카드 지원 등 종합적 복지 혁신을 내세웠다.

⑥ 학제 개편 및 미래 전략

후보들은 모두 △바이오(Bio)△AI△K-컬처 등 신산업과 우리학교 고유의 어문 및 지역학을 결합한 융복합 학문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학제 개편과 디지털 교육 전환에 공동된 비전으로 제시됐다. 장지호 후보자는 융합전공 활성화와 글로벌 전략언어센터 신설로 실용적 학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우 후보자는 세 캠퍼스의 상생 발전을 통해 혁신형 학문 구조를 구축하고 AI 기반 학사 시스템으로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승필 후보자는 국가미래전략원 설립을 통해 학문 연구를 국가 정책과 연계시키는 '미래 전략형 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이상환 후보자는 AI·BIO 융복합 학제 개편과 산업 맞춤형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임대근 후보자는 △국제전략대학원△자유전공학부△K-컬처대학 등을 송도캠퍼스에 신설해 삼각캠퍼스 특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훈 후보자는 글로벌 싱크탱크(Think Tank) 설립과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확대를 통해 교육의 유연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홍선 후보자는 캠퍼스별 독립적 학제 운영과 글로벌 전공 필수 영어강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달승 후보자는 글로벌 K-교육원 및 헬스케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박홍수 후보자는 버클리음대 공동학위 과정과 International Medical School 설치로 종합대학으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우리학교의 변화를 위해선...

지난 제12대 총장 선거는 △교수△직원△학생 3주체가 모두 투표에 참여하는 첫 선거였던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5%에 불과해 실질적 영향력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13대 총장 선거에선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12%로 확대되며 학생들의 한 표가 지난 선거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됐다. 차기 총장의 4년 임기는 우리학교가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시설 노후△인문계열 기피 현상△재정난 등 우리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대학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학생들의 한 표가 변화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이해봄 기자 11haebom@hufs.ac.kr

기호 1번 장지호

행정학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6대 총장
동원육영회 사무처장

현 우리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지호 후보자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외대, 새로운 70년의 시작'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소통 중심△학생 중심△혁신 중심 대학을 목표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소통 강화를 위해 △교직원△동문△학생이 참여하는 'HUFSCareerPath' 이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 혁신 부문에선 △교양과정 개편△글로벌 여정 강화 프로그램 확대△융합전공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연구 및 재정 혁신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고 외부 연구비를 유치

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해 연구 경쟁력과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복지 강화를 위해 △등록금 부담 완화△장학금 확대△주거 및 의료 지원 체계 개선 등 실질적 복지 향상을 추진하며 동시에 캠퍼스 혁신을 통해 노후 시설 개선과 친환경 스마트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윤성우

철학과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
현 우리학교 철학과 교수

윤성우 후보자는 △구성원 복지 및 공정·소통의 조직문화 실현△세 캠퍼스 연결을 통한 혁신 및 상생 발전△연구와 교육 중심의 대외 평가 재도약 및 연구력 고도화△재정 다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캠퍼스 혁신을 위해 △글로벌 캠퍼스의 4차산업 미래캠퍼스 구축 및 신중앙도서관 건립△서울 캠퍼스의 차 없는 그린캠퍼스 전환△송도캠퍼스의 약학대학 신설 및 바이오 특성화를 약속했다. 또한 총장 직속 AI 위원회를 신설해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외 평가 재도약을 위해 대외평가 전담 부서를 신설해 QS 평가 400위 및 중앙

일보 15위 이내 진입을 추진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 본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다각화를 위해 △교직원 임금 매년 5% 인상과 6년 근속 직원 안식 월 제도 도입 등 현실적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유달승 후보자는 △직원 급여 인상△학생 장학금 확대△호봉 형평성 회복을 공약했다. 박홍수 후보자는 △교원 연구비 지원△급여 인상△제3자 카드 지원 등 종합적 복지 혁신을 내세웠다.

기호 3번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서울대학교 재정경제위원
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후보자는 미래 전략형 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스마트 인프라 구축△지속가능한 재정 혁신△AI 및 데이터 기반 융합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어문△이공△인문을 아우르는 유연한 학제 운영을 통해 실용적 리더십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국책과제 수주 및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연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AI 기반 행정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참여와 돌봄 중심의 복지 체계를 마련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송도캠퍼스에 대

학원을 신설하고 한류와 기후환경 등 글로벌 현안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미래전략원 설립을 통해 우리학교의 학문적 역량을 국가 전략 연구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총장'으로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이상환

정치외교학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현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환 후보자는 '외대 Reboot: 회복과 도약'을 비전(Vision)으로 내세워 '창의와 도전의 공동체 외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수와 연구△재정과 인프라△직원과 행정△학생과 교육 등 4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대학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약속했다. 먼저 재정과 인프라 혁신을 통해 등록금의 의존율을 낮추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R&D사업 수주를 연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안정적 재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캠퍼스 공간 인프라를 개선하고 AI 캠퍼스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스마트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에선 우리학교 고유의 어문 및 지

역학 경쟁력을 기반으로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결합한 융복합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부문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제도와 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교수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행정과 복지 측면에선 △공정한 인사제도△근무환경 개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행정체계를 추진해 '직원이 행복해야 대학이 성장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5번 임대근

융합인재학부

우리학교 홍보실장·기획조정처 부처장
현 한국영화학회 회장
현 우리학교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학장



임대근 후보자는 △소통과 신뢰의 거버넌스 구축△서울·글로벌·송도 삼각 캠퍼스 특성화△세계통역·번역축제 등 외국어 전통 계승△연구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학교 기업 설립을 통한 재정 확충△K-컬처와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미래 개척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대근 후보자는 재정 확충과 캠퍼스 특성화를 위해 송도캠퍼스를 자족형 캠퍼스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도캠퍼스에 △국제전략대학원(내국인+외국인)△바이오 비즈니스(Bio Business, 내국인)△자유전공학부(외국인)△K-컬처대학(외국인) 등을 신설하여 2030년까지 재학 인원 2,8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의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통역 및 번역축제를 창설하고 세계언어교육원과 세계언어박물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통번역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고 HUFS 번역인증제를 시행할 계획도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 제도의 강의별 자율화 및 전공 학점 자율화(42~72학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학 중 1회에 한해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H-마일리지를 지원하는 해외 워크숍 런케이션(Learn-cation)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을 위해서는 연구 마중물 제도를 활성화하고 AI 조교(생성형 AI 유료 버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기호 6번 강기훈

통계학과

현 (사)한국통계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국기통계위원회 위원
현 우리학교 통계학과 교수



강기훈 후보자는 △글로벌 싱크탱크 설립△재정 규모 3,000억+ 달성을 △네이버와 함께하는 AI 캠퍼스 구축△QS 대학평가 10위 목표를 4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구체적으로 △전교생 AI 리터러시 필수화△전공과 AI를 융합한 마이크로디그리 확대△네이버 클라우드△계약 학과△주간△AI 융합교육원을 설립하고△HUFS-NAVER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해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외교안보통상전략연구원(IGDSTS)과 글로벌문화콘텐츠 & 트렌드연구원(IGCCT)이라는 2개의 대형 연구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위상 강화를

위해 2029년까지 QS 대학평가 국내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제 연구 네트워크 확장△교수당 피인용도 개선△졸업생 성과 강화△학계 평판도 상승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 재정 규모를 600억 이상 증액하여 3,000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글로벌 K-콘텐츠 한국어 교육 사업△정부지원과제 추가 수주△외국인 유학생 확대△태양광 발전시설 임대△K-MED@HUFS 의료서비스 플랫폼 등을 제시했다.

기호 7번 박홍선

통계학과

현 우리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현 우리학교 글캡 CCC지도교수
현 우리학교 통계학과 교수



박홍선 후보자는 △국제화를 위한 인력-재정 확충△대학 3주제(교수-직원-학생) 복지환경 개선△멀티캠퍼스 정체성을 이용한 교육△연구 환경개선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글로벌캠퍼스 AI 연구소 설립△서울-글로벌 셔틀버스 하루 7회 운행△우리학교 연구소 중심의 연구문화 정착△중단된 글로벌캠퍼스 스마트 도서관 증축△주간△4개 주요 외국어 강의 개설 등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글로벌캠퍼스 전동스쿠터 허용△기술사 1년 계약 선택 가능△양 캠퍼스에 폭력/범죄대응 파견경비팀 상주 및 안심비상벨 설치△15년간 정체됐던 교직원

임금의 지속적 인상(매년 5% 추진)△6년간 근속한 직원에게 안식월(1개월) 실시 등 구성원의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캠퍼스별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팀 2개△독립 운영△만원의 기부금 채널 신설을 통한 기부문화 형성△외대인의 밤 활성화△전공 필수 과목 중 1개 영어(원어) 수업 실시△2026년 신입생부터 범정한도 내 등록금의 점차적 인상 등을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갖추고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8번 유달승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경찰청 국가대테러 협상위원
현 우리학교 중동연구소장
현 우리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



유달승 후보자는 '외대를 외대답게,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공동체△공감△변화△연결을 핵심 가치로 한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 클러스터와 건강검진센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헬스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K-교육원을 설립해 다언어 기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콘텐츠를 세계와 공유하고 발전기금 400억 원을 조성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교육 부문에선 △글로벌 현장형 교육△미래캠퍼스와 AI 기반 맞춤형 교육△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전공 및 창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열린 총장실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확립하고 △교수 연구 지원 강화△직원 복지 향상△학생 장학금 확대를 통해 구성원이 존중받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서울△송도캠퍼스의 특성화 발전과 강남캠퍼스 신설을 추진해 '비상하는 외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9번 박홍수

중국언어문화학부

우리학교 입학처장
우리학교 중국학대학 학장
현 우리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박홍수 후보자는 '존중 속에서 성장하는 외대'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5대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재정혁신을 통해 △글로벌 유학생 유치△'버클리 음악대학(이하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아시아 허브 설립△China MBA 등 고부가가치 학위 과정을 확대해 4년간 558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복지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혁신 분야에선 AI 및 데이터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교수진의 AI 역량을 높여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며 버클리음대와 연계한 융합 교과과정과 해외 의료인 대상 International Medical School 설치를 추진해 종합대학으로서 발전시키

겠다고 전했다. 행정혁신을 위해 △인사△재무△학사를 통합한 AI 기반 자동 행정 서비스와 ERP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을 도입해 헐증적이고 투명한 대학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부문에선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급여 인상△생활밀착형 복지 확대△연구 중심 복지를 통해 학내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캠퍼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서울△송도캠퍼스를 각각 △바이오△어문학△이공학 특화 캠퍼스로 조성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새로울 신 新

“가죽 협에 새로울 신 혁신적인 여자” 중학교 학년말 소개란에 내가 썼던 글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걸 좋아했던 난 고등학생 때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공학 연구원이 되길 희망했다. 무언기를 밀고 끌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새로울 신 활자의 정의였다.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던 영어학 전공생이 된 후 난 순에 들린 전공 책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미 정갈하게 정리된 언어학을 배우며 내 인생에선 더 이상 새로울 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지나가다 발견한 것이 학교 신문이었다. “신문을 미지 막으로 본 적이 언제더라”며 무심코 집어 든 외대학보를 읽으며 매료된 그때 난 대학에 서 다시 새로울 신을 발견했다.

기자는 기삿거리를 위해 매일 새로움을 찾아다닌다. 그렇기에 ‘신문’이란 단어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새로움’을 내포한다. 나 역시 기사의 주제를 찾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기사 작성에 있어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 주제는 수많은 사건 중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주제 즉 새로움을 찾기 위해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듣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기사의 주제로 변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떤 점이 문제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고려해본다.

외대학보 기자로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 나에게 새로움이었다. 곧 누적 조회수 10만 회를 앞둔 블로거(Blogger)지만 기사를 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블로그(Blog)에선 항상 나에 대해서만 쓰다 보니 기사에도 주어나 목적어를 빼뜨리기 십상이었고 형식과 토고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적는 블로그 글과 사뭇 다른 마흔한 책임이 있었다. 그렇지만 첫 보도 기사를 작성했을 때 우리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주최한 행사를 다뤄줘서 감사하다며 연구소 일원 모두 공유했던 담장을 받았을 때 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심층 기사를 맡았을 때 통계청과 관련 기사 인터넷 참을 수십 개 끄어놓고 자료 조사를 했다. 이 기사가 발행된 학보를 펼치는 순간 기자로서 느끼는 보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획 기사는 정말 어려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획해서 내가 구성을 짜는 글이기에 쓰는 내내 즐거웠다. △교수진△종합정보시스템△총학생회△대학
지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타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학사 제도와 강의계획서까지 읽었다. 모두 외대학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혀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무언가를 여러 명이 함께 프로젝트형으로 만드는 것도 학창 시절보다 더 나아간 경험 이었다. 학보 면접에서 밝혔듯이 난 글쓰기에 있어 0부터 시작하기에 학보 내 선배님들의 피드백은 감사하게 받는다. 여전히 부족한 내 기사를 읽고 매번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주신 편집장님과 부장님들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기사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기사가 발행되는 데 있어 많은 손길을 거친다. 제안서 브리핑부터 조판까지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아워낸 것이다.

어느덧 이번 학기의 절반을 넘어서 학보 활동도 2
번만의 발행을 넘겨 두고 있다. 비록 반년 동안이지
만 어느 대학 생활보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외대학보 111기 기자 활동이 나에게 20대 그리고
나아가 인생의 새로운 문(新門)이 되길 바라며 4번
째 미감도 무사히 마친다.



송주원 기자

1108호 학보를 읽고

우리학교와 사회를 기록하는 외대학보 기자들

중간고사가 끝난 것을 알리는지 차가운 공기가 코에 맴돈다. 캠퍼스에 보이는 외투가 점점 두꺼워져 가는 건 추운 날씨를 증명한다. 외대학보는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취재를 이어 나갔다. 이번 외대학보 1108호에선 △성적 제도 개선 요구△AI 시대의 어려운 계열△지하복합시설 불편△캠퍼스 언론 양극화 등이 담겼다.

3면에선 성적 제도 개선에 관한 학생의 요구와 그에 대한 학교 의견을 담았다. 우리학교 상대평가 비율에 대한 불만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학생 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들도 ‘성적을 너무 박하게 줄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일부 과목의 경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율을 완화할 순 없더라도 다소 포괄적으로 구성한 현행 상대평가 제도를 각 과목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4면에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시대에 어려운 계열 학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AI 발전은 어려운 계열 학과가 주류인 우리학교를 위협하고 있다. 어려운 계열 학과들의 경우 생선형 AI의 번역 능력과 현지 정보 제공 능력으로 인해 더욱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어려운 계열 학과 학생들은 ‘플러스 알파(Plus Alpha)’를 갖춰야만 경쟁력을 기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디 각 학과와 학교가 이번 기사를 참고해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구성했으면 한다.

5면에선 지하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겪는 △소음△안전△흡연 문제를 담았다. 특히 소음과 안전 문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인 만큼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학교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란 마음가짐으로 해당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7면에선 캠거루족이란 사회 문제에 대해 다뤘다. 캠거루족은 외대학보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 경제·정서적으로 부모에 의탁하는 청년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문제다. 국가 차원에서 청년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년들이 정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교육△상담△주거 설계 프로그램 등도 이뤄져야 한다.

8면에선 언론 양극화에 대해 다뤘다. 언론이 편향적인 기관으로 여겨지며 언론인들은 각자 소속된 매체의 독자에 의해 ‘자기 검열’을 수행한다. 언론사가 수행해야 할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역할을 독자가 수행하는 꼴이다. 우리 공론장을 언론에 독자에 흔들리지 않고 특정 가치관에 기반한 뿐만 깊은 시선’을 요구해야 한다.

기자란 단어의 뜻은 ‘기록하는 자다’. 이번 1108호에서도 외대학보는 우리 사회를 기록하는 자로서 학내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민까지 기록했다. 이들의 기록이 우리학교와 사회의 발전 토대가 됐을 것이다. 오늘도 치열하게 △발제△취재△기사작성하는 모든 외대학보 기자들을 응원 한다.

[책 ‘게팅하이’를 읽고] 영원을 노래하는 밴드

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밴드 ‘오아시스(Oasis)’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의 노동자 계급 출신인 그들은 1990년대 ‘브리트팝(Britpop)’ 열풍의 중심에서 영국 차트를 훨씬 시대의 상징이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밴드의 구심점이자 작곡가인 헨리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와 독보적인 보컬리스트인 동생 리암 갤러거(Liam Gallagher) 두 형제의 끝없는 불화는 결국 밴드의 동력을 깎아먹었다. 지난 2009년 팬들의 아쉬움 속에 공식 해체를 맞이했던 이들이 지난해 기적 같은 재결합 소식을 알리자 전 세계가 열광했다.

책 ‘게팅 하이(Getting High)’는 갤러거 형제가 아버지의 폭력을 겪으며 성장한 어린 시절부터 이들이 가장 빛나던 순간인 1990년대까지의 생생한 일화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연대기나 성공담이 아니다.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의 중심에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던 젊은 밴드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포착한 타임캡슐(Time Capsule)에 가깝다. 저자가 바로 곁에서 지켜본 시선으로 기록한 덕분에 이 책은 1집 ‘Definitely Maybe’와 2집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가 탄생한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직관하는 듯한 현장감을 준다. 책을 넘기다 보면 성공에 취해 두려움 없던 그들의 태도가 책장 밖으로 뛰어나오는 듯하다.

나는 노엘 갤러거의 가사에 많은 힘을 얻어왔다. 사람들은 그들의 거친 언행과 끊이지 않는 소문에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서 노엘의 가사는 항상 평범한 이들의 삶과 꿈을 노래했다. ‘Stand by Me’에선 “모든 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며 시련은 곧 지나갈 것이라 다독이고 ‘Live Forever’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며 “영원히 살고 싶다”고 외치는 식이다. 이런 그의 가사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됐다.

지난 10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재결합한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이 16년 만에 열렸다. ‘게팅 하이’가 그들의 폭발적인 과거를 기록한 증언이라면 이번 해의 공연은 그들의 음악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현장의 열기는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다. 노엘의 가사는 수만 명의 노래로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사이에 있단 사실만으로 벅찬 기쁨을 느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란 ‘Acquiesce’의 가사에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의 음악이라고 답하고 싶은 순간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갤러거 형제의 불화와 돈 문제에 집중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그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봤다. 음악이 세대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기적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여전히 우리 삶에 강력한 위로를 건네고 있단 사실 말이다. 오아시스의 재결합이 음악과 공연계의 큰 화두로 떠오른 2025년 그 열광의 근원인 90년대를 ‘게팅 하이’를 통해 생생하게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팬이 아니더라도 한 시대의 공기를 바꾼 뮤지션의 거친 에너지를 이 책을 통해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 1990년대 중후반 영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

윤고은 기자 10goeun@hufs.ac.kr

영화 ‘위키드’를 보고

나로 서기까지의 시간을 버티는 마법

지난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뮤지컬 영화 ‘위키드(Wicked)’는 브로드웨이(Broadway)의 성공작을 스크린으로 옮겨온 화제작이다. 존 M. 추(John M. Chu) 감독은 ‘오즈의 마법사’ 속에서 서쪽의 사악한 마녀로 기억되는 엘파바(Elphaba)를 초록 피부와 강력한 마법 뒤에 숨은 한 인간으로 새롭게 그려낸다. 영화는 도로시(Dorothy)가 오즈에 떨어지기 이전 아무도 몰랐던 순수한 이상을 품고 살았던 젊은 엘파바의 시간을 따라간다.

쉬즈(Shiz) 대학에서 엘파바는 타인과는 다른 초록색 피부 때문에 외톨이로 살아간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 억압받는 동물들을 도우려 했으나 세상은 그의 바람에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어렵게 만난 룰메이트 글린다(GLinda)와 엘파바는 자주 부딪히고 글린다와 타협해 인기를 쫓는 삶은 엘파바에게 견딜 수 없는 이질감으로 다가온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엘파바는 자신의 재능을 마법사에게 직접 보일 기회를 얻게 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유일한 희망인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에메랄드(Emerald) 시티로 향한다.

결국 선명의 대상인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또 다른 기만과 마주한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위대한 마법사는 사실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오히려 동물의 지성과 언어를 빼앗아 그들을 억압하는 음모의 배후였다. 또 마법사와 마담 모리얼(Morrible)은 엘파바의 강력한 마법을 이용해 말하는 동물들을 영원히 침묵시키고 날개 달린 원숭이 군대를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강화 하려 한다.

모순적이게도 엘파바는 글린다와의 우정 속에서 조금씩 변한다.

착함의 기준이 흔들릴 때 그를 지탱해준 것은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다고 규정하더라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지키겠단 결단이었다. 영화는 도로시의 물벼락이나 원숭이 군대 같은 외형적 장면들보다 엘파바가 마법사의 기만을 깨닫고 선택을 내리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 결국 벗자루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은 결과가 아닌 그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피날레(Finale)다.

이 영화의 진정한 묘미는 엘파바를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타고난 악당이 아닌 입체적인 인물로 재해석했다는 데 있다. 영화 속 그녀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이며 권력 앞에서도 직설을 서슴지 않는 용기를 지녔다. 때문에 그 솔직함이 세상 물정에 어두운 순진함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주변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영화는 그런 모습들을 결점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신념의 증거임을 보여준다. 영화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그녀가 거대한 권력의 기만에 맞서 ‘사악한 마녀’란 오명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상처와 외로운 싸움을 견뎌야 했는지를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밀도 있게 따라간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는다. 큰 인정보다 나답게 만드는 신념 한 가지를 갖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편견 속에서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엘파바의 삶은 조용히 전한다.

이해봄 기자 11haebom@hufs.ac.kr

1108호 학보를 읽고

우리학교와 사회를 기록하는 외대학보 기자들

남우현(사회·정외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108호 학보를 읽고

늦가을에 만난 학교 소식

장한샘(자연·화학 25)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을 보며 가을의 시작을 실감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공기의 맑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지구 온난화로 여름이 길어지며 가을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 텁인지 계절의 변화가 유난히 빠르게만 느껴진다. 이런 속도감은 비단 자연의 흐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하다. 새 학기의 분주함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중간고사라는 큰 고비도 훌쩍 넘어섰다. 숨 가쁘게 달려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비로소 시간적, 정신적으로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문득 이 바쁜 시간 동안 캠퍼스 안팎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자연스레 관심은 학내와 소식을 담고 있을 외대학보로 향했고, 백년관에 놓여 있는 신문을 집어 들었다.

3면에서는 우리학교 성적 제도를 되짚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현재 △A등급 비율 35%△A등급과 B등급을 포함한 비율 70% 이내로 제한된 상대평가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학내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이 성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의 주요 요인은 다른 많은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이미 A등급 비율을 40% 혹은 그 이상까지 허용하고 있어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점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우리학교의 절대평가 체계 조건이 제한적인 점도 지

적된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상대평가 비율 조정은 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성적 비율을 확대하면 성적 인플레이션(Infation)과 신뢰도 하락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으며 절대평가 확대 시 교수 재정에 따른 성적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불만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시대 변화와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대평가의 비율을 재조정하여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학사 자율화를 통해 교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생 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외대학보 1108호는 △인공지능과 함께 가는 번역△외래종의 무분별한 방생△언론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안들을 조명했다. 특히 생태계 교란 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에서 유입된 동물을 가정에서 기르다 관리 부담으로 인해 무책임하게 방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을 증명하는 제도와 반려동물 방생 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대학보에 앞으로도 학교 안팎의 정보들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생생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

이탈리아 문학의 매력을 우리말로 옮기는

김지우 번역가를 만나다

김지우 번역가(서양어·이탈리아 98)는 우리학교 이탈리아어과를 졸업한 뒤 우리학교 국제지역 대학원에서 유럽연합 지역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그녀는 이탈리아 작품의 번역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스알바 데 세스페데스(Alba de Cespedes)*의 '금지된 일기장' *엘레나 페란테(Elena Ferrante)*의 '나쁜 사랑 3부작'과 '나폴리 4부작' 등이 있다.

이탈리아 문학의 매력을 우리말로 옮기는 김지우 번역가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이탈리아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 성악을 하시던 아버지를 따라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단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정화 통역사님께서 우리나라 제1호 동시통역사로서 활약해 통역과 번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도 했죠. 결국 제가 이탈리아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또한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단 생각이 우리학교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학교 행사에 많이 참석했어요. 특히 국제 영회를 좋아해 당시 우리학교에서 주관하던 세계 영회제를 같이 준비하기도 하고 외대통역협회에 가입해 다양한 통역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Q3.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외대통역협회에서 활동하며 당시 대학생으로선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지만 정당한 보수를 받고 통역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2학년 때 큰 국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통역협회를 통해 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당시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과 LG칼텍스(현 GS칼텍스)에서 이탈리아 시칠리아(Sicilia)의 정유 공장을 방문해 벤치마킹(Benchmarking)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해당 프로젝트 준비부터 시칠리아와 여수에 방문해 양국의 정유 시설을 직접 보고 비교하며 관련 용어들을 배우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통역한 경험이 가장 큰 경험이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제가 갖고 있던 실력으로 할 수 없었던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Q4. 이탈리아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제가 이탈리아로 유학하러 갔던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를 제2외국어로 인식하며 배워야 했습니다.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탈리아에 간 지 6개월 만에 현지 학교에 바로 입학했죠. 그러나 생존을 위해 공부를 해야 했어요. 현지 학교는 구술시험으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시험이 있다면 이에 대해 말로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지 싫어 하는 성격이었고 선생님께서 제 노력만이라도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10장에 달하는 내용을 전부 외워 앤무

새처럼 말했습니다. 돌아보면 무조건 외우는 과정이 언어 학습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하는 데 단단한 기초가 됐어요. 어휘와 문법을 배우는 과정이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화된 거죠.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것도 언어를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5. 번역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소설처럼 서사가 있는 글을 좋아했습니다. 직접 글도 써보고 싶었지만 창의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번역이란 것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개입이 조금이나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창의력은 약간 부족하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제가 가장 큰 대리 만족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지인을 통해 한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시 표본 번역을 30장 정도 했는데 책과 잘 맞을 것 같다고 해 본격적인 번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Q6. 책을 번역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우선 번역을 맡은 작품에 대한 피악을 위해 책을 읽습니다. 처음 읽을 땐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사전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요. 가볍게 읽은 뒤엔 작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작가에 대한 정보 및 작품의 배경 등을 조사하며 읽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번역에 들어갑니다. 번역할 땐 루틴(Routine)처럼 매일 특정 분량을 정하고 꾸준히 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 동안 번역한 내용을 재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문과 비교하며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번역이 끝난 뒤엔 원서를 보지 않고 제가 번역한 내용을 쭉 읽어봐요. 문장의 흐름을 다시 검토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판사에 보내면 출판사에서도 교정을 합니다. 편집자와 함께 교정 과정을 통해 독자들이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합니다. 예를 들어 편집자가 "이 부분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고 하면 일부는 수정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작가가 의도한 부분입니다"고 설명해 조율하기도 합니다.

Q6-1. 번역하며 막히는 순간이 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궁금합니다.

'막히는 순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연체와 같이 문장이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끔 문장의 시작부터 끝이 한 페이지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구문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표현적인 면에 있어 번역이 딱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엔 번역해야 할 글을 회면으로만 보지 않고 종이에 인쇄합니다. 그렇게 하면 번역이 퍼즐 맞추듯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앉아서 한 문장을 붙잡고 3~4시간을 고민해도 끝까지 해결책이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땐 우선 덮어놓고 그날 번역해야 할 분량을 마친 뒤 쉬는 시간에 제가 예전에 번역했던 책을 읽어봅니다. 똑같은 작가의 책인 경우엔 그 작가의 다른 책을 보지만 아니라면 비슷한 장르의 다른 책을 봐요. 제가 번역한 글이 아니더라도 좋은 글을 보면 고민하던 문장이 풀리고 좋은 표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깐 시간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Q7. 그동안 번역하신 작품들을 보면 엘레나 페란테와 알바 데 세스페데스 등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작품을 주로 번역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출판 번역을 맡은 작품이 엘레나 페란테의 '나의 눈부신 친구'입니다. '나의 눈부신 친구'가 큰 성공을 거두며 엘레나 페란테의 작품을 모두 번역하게 됐습니다. 첫 번역작이 여성의 서사를 다룬 작품이다 보니 그 이후로 여성 소설가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이라면 다른 출판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제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여성 작가 전문 번역가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꼭 그 분야만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 작가의 작품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여성이다 보니 여성 작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작가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제 목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Q8. 그동안 번역하신 책 중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나의 눈부신 친구'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대작이기도 하고 작품 안에 이탈리아의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성장△우정* 등의 감정이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의 눈부신 친구'는 우리 나라의 '토지'와 같은 대하 드라마 같으면서도 인간의 내밀한 심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4부작의 긴 장편이란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학생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삶'이란 책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작품은 자전적 소설로 특이하게 작가가 실제로 겪었던 사랑하는 연인의 자살을 다뤄요. 연인이 자살한 뒤 작가가 남은 생존자로서 트라우마를 이겨나가는 과정을 담담하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Q9. 앞으로의 계획 또는 목표가 궁금합니다.

일차적으로 좋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많이 번역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이탈리아와 관련한 문화와 지식을 우리나라에 많이 전달하고 싶어요. 전 '지식 소상인'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식은 많이 접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관련된 것에서 제가 '지식 소상인' 역할을 하고 싶단 소망이 있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번역가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번역할 땐 출발어뿐 아니라 도착어 또한 중요합니다. 국어 문법의 정확성도 필요하지만 다독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땐 정독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정독하며 좋은 문장이 있다면 줄도 치고 다시 읽어보기도 하며 한국어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직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문학의 경우엔 영원히 대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번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본인만의 색채를 가진 문장을 써내는 번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서 기자 09kimmminseo@hufs.ac.kr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외 대 학 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